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5년 제 33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쇼트트랙 김선태 총감독, 퇴촌 조치 '과거 관리소홀 징계 감독

파이낸셜 전상일 기자

02

423분의 녹음파일... '학대'의 진실은 이 안에 있다

설록 조아영 기자

03

진종오, 체육계 신뢰회복 위한...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 이상욱 기자

04

늘어난 문체부 예산, 체육은 최저 증가율... "K-컬처에 방점"

파이낸셜 전상일 기자

05

6000만원 꿀꺽... 하다하다 이제는 '빙상연맹'까지 피싱 사기를 당하다니

파이낸셜 전상일 기자

쇼트트랙 김선태 총감독, 퇴촌 조치 '과거 관리소홀 징계 감독'

중앙일보 박린 기자

2025. 9. 5. 17:13

사진=(연합뉴스)

논란 속에 한국 쇼트트랙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된 김선태(49) 감독이 결국 퇴촌 조치됐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5일 대한체육회에 “김선태 지도자의 과거 징계 건에 대해 방상연맹의 추가조사 필요로 퇴촌 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빙상연맹은 지난달 쇼트트랙 대표팀 사령탑을 교체했고, 임시 총감독에 김선태(49) 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선임해 논란이 됐다.

그러자 지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쇼트트랙 지도자 선임 방식과 보직 변경에 여러 의문점이 존재한다. ‘관리 소홀 감독’(윤재명)을 몰아내고 ‘과거에 관리 소홀로 중징계 받은 감독’(김선태)을 선임하는 황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제서야 연맹이 임시 후속 조치를 취한 거다.

김 감독은 2018 평창올림픽에서 한국팀을 맡아 금메달 3개를 수확했지만, 조재범 코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거짓 보고 및 사건 은폐 등으로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이다. 앞서 진 의원 감독 선임 관련 지적에 빙상연맹은 “당시 사건으로 징계 받은 건 조재범 코치이고, 김 감독은 관리 소홀 책임이 주된 징계 요인”이라고 해명했다. 선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9년 5월 징계 의결서에 따르면, 당시 빙상연맹은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건을 허위 보고해 직무를 태만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물의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에 배치된다.

01

연맹은 “연맹 자비로 김 감독을 쓰는 건 성과 극대화와 훈련 공백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빙상계 안팎에서는 김선태 감독 선임을 위해 무리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기존에 대표팀을 이끌던 윤재명 감독과 A 코치는 지난 5월 공금 사용 문제로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빙상연맹은 윤 감독과 A 코치가 네 차례 외식에 20만원대의 공금을 쓴 걸 문제 삼았다. 윤 감독은 대한체육회 재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연맹은 이번에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 관리 소홀을 이유로 윤 감독 보직을 바꿨다.

김선태 감독은 2022 베이징올림픽 당시 러시아에 귀화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40) 코치와 함께 중국팀을 이끌었다. 대회 기간 김 감독은 한국에 불리한 편파판정에 침묵하고, 중국이 한국을 꺾고 금메달에 탄 데 크게 환호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연맹은 김 감독의 정식 임용 가능 여부를 대한체육회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할 계획인데, 그전에 일단 퇴촌 조치를 취했다.

진 의원은 5일 “김 감독을 퇴촌 조치했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이 됐던 사건 등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정감사 기간에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423분의 녹음파일… ‘학대’의 진실은 이 안에 있다

셜록 조아영 기자

2025.08.27

사진=피해자 고연서(가명) 씨가 신었던 피겨스케이트화(셜록)

423분. 손미영(가명) 씨가 모은 녹음파일의 총 재생시간. 언젠가 딸 고연서(가명, 24) 씨가 당한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나씩 모아온 파일이 모두 21개다. 녹음파일 안에는 피해자에게 끔찍한 악몽으로 남은 사건의 증거가 들어 있었다.

연서 씨는 지난해 12월, 무려 13년 만에 입을 열었다. 초등학생 때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구빙상경기연맹 소속 김아영(38) 코치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피해자는 김 코치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된 날부터 시작된다. 대구빙상경기연맹에 김 코치에 대한 징계요구서도 제출했다.

어머니 손미영 씨가 모은 녹음파일에는 김아영 코치가 폭행 사실을 시인하는 말들이 담겨 있다.

어머니: “캐나다 가기 전에도 그래요. 엄마들 다 보고 있었어요. (스케이트화) 날집으로 때리는 거.”

김 코치: “그렇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2016. 2. 22.)

최악의 사건은 2013년 여름, 캐나다 전지훈련 기간에 발생했다. 당시 12살이었던 피해자는 가족과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주먹과 발이 날아오는 건 다반사였다. 이유는 “점프를 성공하지 못해서”.

어머니: “그러면 때린 거는 맞아요?”
 김 코치: “때린 건 맞아요.”
 어머니: “발로 차고 그런 거는 맞아요?”
 김 코치: “네.”(2016. 2. 22.)

피해자는 얼굴이 “피떡”이 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전지훈련 어느 날, 김 코치는 피해자에게 줄넘기 2단뛰기 1000개를 지시했다. 이번에도 이유는 “점프를 뛰지 못해서”. 줄에 걸리거나 넘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훈련이 아니라 체벌에 가까운 거였다.

피해자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하자, 김 코치는 피해자를 그대로 차에 태웠다.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피해자는 증언했다. 코피가 쏟아지고, 입술이 터졌다.

입술 양옆이 찢어진 적도 있었다. 피해자는 김 코치가 자신의 입 안에 양쪽으로 손가락 두 개를 집어넣고 입이 찢어질 듯 잡아당겼다고 말했다. 점프를 성공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어머니: “나는 선생님(김 코치)한테 직접 듣고 싶어요. 나 우리 딸(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너무 많이 의심했어.”
 김 코치: “입 꼬집은 것도 맞고, 배 꼬집은 것도 맞고, 발로 찬 것도 맞고, 맞아요.”
 어머니: “그건 다 봤잖아. 다른 애들도.”
 김 코치: “맞아.”(2016. 2. 22.)

뱃살이 잡아뜯길 정도로 손톱으로 꼬집기도 했다. 이후 김 코치가 “빨리 나아서 (한국) 가자”며 상처 부위에 ‘상어기름’을 발라줬다고 피해자는 주장했다. 그리고 김 코치는 한 가지를 당부했다.

“선생님이 사랑해서 그런 건 줄 알지?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피해자는 천식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 따르면, 김 코치가 약을 제한하기도 하고 치료기(네블라이저) 사용을 막은 적도 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이유로.

캐나다 전지훈련장 ‘화장실’은 피해자에게 공포의 공간으로 남았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김 코치에게 목이 졸리며 들은 말을 기억한다.

“그냥 죽어. 니가 죽으면 엄마한테 천식으로 죽었다고 말하면 돼.”

화장실은 아무도 보는 눈이 없는 장소. 학대 수위는 더 높아졌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김 코치는 피해자의 입 안에 가위 한 쪽 날을 집어넣고 “입을 자르겠다”고도 말했다. 피해자는 그때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어머니: “캐나다 갔다 와서 애가 화장실을 돌아서 갔다고!”(기자 주 -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입구 앞을 빙빙 돌며 망설이다가 들어갔다는 뜻)

김 코치: “거기 데리고 들어가서 혼내고 때리고 한 거 맞아요. 밖에서 못 혼내고 밖에서 못 때리니까.”(2016. 2. 29.)

김 코치는 피해자 어머니와 2016년 2월에 한 대화에서, 구체적인 학대 사실 각각을 모두 인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대화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저 충분히 많이 물어봤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 드렸지 싶어요.”

김 코치: “사실. 연서(가명)가 말한 거 사실이에요.”(2016. 2. 29.)

하지만 김 코치는 피해자를 자신의 팀에서 방출하겠다고 통보했다. 피해자는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팀을 찾았다. 원래는 그때 김 코치를 고소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김 코치를 고소하면 새 팀에도 못 받아준다’는 조건 앞에서 고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김 코치를 고소한 건 그로부터도 8년이 더 지난 뒤였다. 피해자는 스무 살이 되던 해에 피겨스케이팅 선수 생활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지금도 트라우마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의식 속에서 학대 당시로 되돌아가는 ‘플래시백’ 현상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겪는다. 피해자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김 코치에게 ‘인정’과 ‘사과’를 받고 싶었다.
(관련기사: <‘김연아의 꿈’은 사라지고... 학대의 악몽만 남았다>)

지난해 12월 김 코치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뒤, 어머니 손미영 씨는 김 코치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하진 않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김 코치 : “(흐느끼며) 너무 죄송해요. 이런 전화 해서도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 “아니요. 나한테는 죄송할 거 없고...”

김 코치 : “너무 이기적이다. (자신이) 전화한 게 너무 이기적이다. (흐느끼며) 죄송해요, 어머님. (...) (경찰) 조사 잘 받을게요.”(2025. 1. 27.)

지난 2월에는 김상윤 대구빙상경기연맹 회장의 주선으로 피해자 모녀와 김 코치가 한 자리에 모였다. 김 코치는 그날도 포괄적인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학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답답한 마음에 직접 따졌다.

피해자 : “뭘 잘못했는지 선생님(김 코치)은 모르시잖아요(인정 안 하시잖아요)?”

김 코치 : “(내가) 잘못된 건 맞잖아.”

피해자 : “기억 안 난다면서요! 입 안에 가위 집어넣은 것도, 목 조르면서 말한 것도! 선생님, 기억 안 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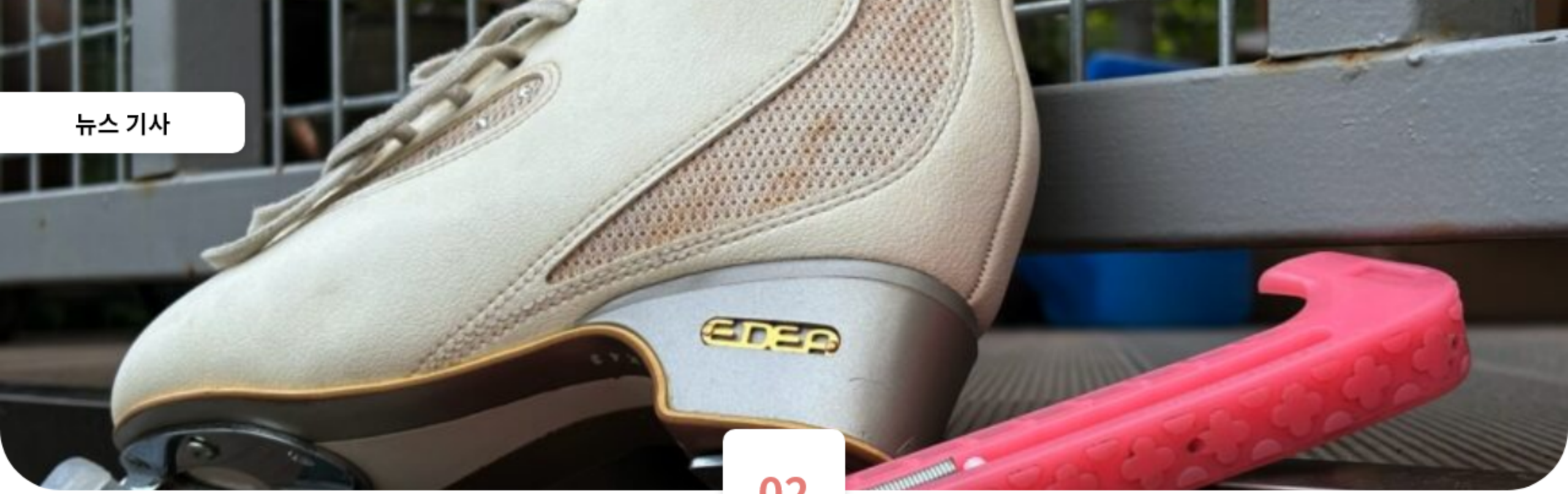
김 코치 : “아니.”(2025. 2. 13.)

김 코치는 어떻게든 법적 책임을 피하려 했다. 피해자 측에 ‘이면합의’를 제안한 것. 구체적인 학대 사실들을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한 장, 그리고 ‘민.형사상 합의했다’는 “담백한” 내용으로 또 한 장. 그렇게 두 장을 쓰되 경찰에는 후자만 제출하자는 말이었다.

13년 동안 피해자는 ‘악몽’ 속에 가라앉고, 김 코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김 코치는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한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2023년 대구시장상을 받기도 했다.

대구빙상경기연맹은 김 코치에 대한 징계 절차를 8개월째 보류 중이다. 지난 18일 연맹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윤 대구빙상연맹 회장도 “법으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된다”며, “고소 결과가 나와야 징계할 것 아니냐”고 기자에게 반문했다.



02

김 회장은 지난 2월 피해자와 김 코치의 만남을 주선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봐줄래’ 이렇게 (부탁)할 생각을 하고 왔다”, “(나를) 회장 아빠라고 불러라”라고 말한 바 있다. 기자가 해당 발언을 한 이유를 묻자, “잘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
김 코치에게 지난 18일부터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반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지난 22일 그를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그날 김 코치는 문자메시지로, “출산 후 회복 중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다”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추가 피해자 두 명과 목격자가 경찰에 사실확인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대구가정법원은 김 코치에게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2개월간 대구아동보호전문 기관에 상담과 교육을 위탁한다는 내용. 임시조치는 아동보호사건의 원화환 조사·심리 및 피해아동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진종오, 체육계 신뢰회복 위한…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 이상욱 기자

2025-09-08 00:06:47

사진=(진종오 의원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문체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하지만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이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의를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처럼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A시체육회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인권침해를 저질렀지만 징계는 ‘견책’에 그쳤다.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했지만 협회장 자격정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B도탁구협회 회장 당선자가 임원을 폭행했으나 협회 공정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만 의결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C시축구협회장은 권한을 남용하고 성추행까지 저질렀지만 협회는 무징계로 넘어가려 했다. 이후 피해자 재심과 시체육회의 추가 의결로 간신히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협회는 회장 해임 절차를 지연하며 규정을 위반한 채 운영을 지속해 왔다.

이번 개정안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체육단체가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체부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종오 의원은 “체육회 내부의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로는 더 이상 체육계 비리를 막을 수 없다”며 “이젠 외부 기관이 직접 징계 권한을 행사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체육계가 더 이상 비리와 인권침해를 덮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종오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 2기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갑질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클린센터’ 신설을 밝힌 바 있다.

구 분	'25년 본예산		'26년 정부안		전년 대비 증감	
	예산액 (A)	비중 (%)	정부안 (B)	비중 (%)	(B-A)	%
뉴스 기사						
합 계	70,672	100	77,962	100	7,290	10.3
문화예술	23,824	33.7	26,388	33.8	2,564	10.8
콘 텐 츠	12,734	18.0	16,103	20.7	3,369	26.5
관 광	13,477	19.1	14,740	18.9	1,263	9.4
체 육	16,739	23.7	16,795	21.5	56	0.3
기 타	3,899	5.5	36	5.1	37	0.9

늘어난 문체부 예산, 체육은 최저 증가율… "K-컬처에 방점"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2025-09-05 14:54

사진=문체부 예산 캡처자료(노컷뉴스)

올해 대비 내년도 체육 부문 예산(안)의 증가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른 부문 예산과 비교할 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예산에서 체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올해보다 감소했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를 향한 출발'이라며 문화예술·콘텐츠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은 7조 7962억 원으로, 올해 대비 10.3%(7290억 원) 증가했다.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에 해당한다. 이 중 체육부문은 1조 6795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 예산이 1조 6739억 원인 것을 감안할 때 56억 원(0.3%) 증가했다.

다만 올해 보다 체육 부문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올해 체육 부문의 본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23.7%였으나 내년에는 21.5%로, 2.2%포인트 감소했다. 또 올해 대비 체육부문 예산 증가율(0.3%)도 콘텐츠(26.5%), 문화예술(10.8%), 관광(9.4%), 기타(0.9%)에 이어 가장 낮다.

내년도 체육 부문 예산 비중이 올해 보다 줄어든 것에 대한 CBS노컷뉴스의 취재에 문체부 기획조정실 간부는 "체육 부문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콘텐츠 부문 등 다른 부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결과, 상대적으로 체육 부문 비중이 줄었다"고 답변했다.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이 5개 부문 중 최저인 이유에 대해서는 "콘텐츠 부문, 문화예술 부문의 예산이 지난해 보다 각각 3369억 원, 2564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역시 상대적으로 체육 부문 증가율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구 분	'25년 본예산		'26년 정부안		전년 대비 증감	
	예산액 (A)	비중 (%)	정부안 (B)	비중 (%)	(B-A)	%
뉴스 기사						
합 계	70,672	100	77,962	100	7,290	10.3
문화예술	23,824	33.7	26,388	33.8	2,564	10.8
콘 텐 츠	12,734	18.0	16,103	20.7	3,369	26.5
관 광	13,477	19.1	14,740	18.9	1,263	9.4
체 육	16,739	23.7	16,795	21.5	56	0.3
기 타	3,899	5.5	36	5.1	37	0.9

04

체육 부문 예산 편성의 주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스포츠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은 올해 2784억 원에서 2884억 원으로 100억 원 늘어난다. 스포츠 분야 기술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테크펀드를 새롭게 마련한다.

그러나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증가 규모(100억 원)는 관광산업 금융지원의 올해 대비 증가 규모(940억 원)와 비교 시 대폭 적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생활체육 참여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883억 원의 예산(2025년 659억 원)을 투입해 '낙후된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르신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에 75억 원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전문체육 지원도 강화한다. '예비 국가대표 양성'을 신규 사업으로 마련, 3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은퇴 선수 일자리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30억 원 늘어난 80억 원을 책정했다. 체육 분야에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체육 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지원액을 올해 보다 10억 원가량 늘린 40억~50억 원으로 확대한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의 핵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문체부 전체 예산 편성에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를 향한 출발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발표했다.

6000만원 꿀꺽... 하다하다 이제는 '빙상연맹'까지 피싱 사기를 당하다니

파이낸셜 전상일 기자

2025.09.04. 오후 2:37

사진=(연합뉴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국제대회 대표팀 파견 과정에서 약 6천만 원에 달하는 피싱(Phishing) 범죄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문 스포츠 단체마저 신종 금융 사기 수법에 속수무책 당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기고 있다. 빙상계에 따르면, 연맹은 지난 1월 국제대회 조직위원회 등을 사칭한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송금한 뒤 7월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고했다.

연맹은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를 앞두고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현지 체류비 사전 청구서와 입금 계좌를 이메일로 받았다. 담당자는 쇼트트랙 대표팀의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 호텔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해 약 3천900만원을 송금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연맹은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2024-2025 ISU 쇼트트랙 주니어 월드컵 3차 대회 관계자로부터도 비슷한 이메일을 수신해 2천10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해당 메일은 실제 대회 조직위나 관계자가 보낸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기업이나 단체의 업무 시스템을 노리는 신종 피싱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이메일 주소, 로고, 서명 등을 실제와 흡사하게 만들어 수신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속였다. 연맹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 중인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사건은 정부 기관이나 금융 회사를 사칭하는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을 넘어, 국제적인 업무 교류가 잦은 단체와 기업을 노리는 진화된 사기 수법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빙상경기연맹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과 개인이 더욱 철저한 보안 의식을 갖추고, 발신자 정보 재확인, 유선 통화로 사실관계 확인, 내부 교육 강화 등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는 보통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개인에게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를 떠올리지만, 이번 사례처럼 조직 내부의 행정 시스템을 노리는 사기 수법은 더욱 치밀하고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